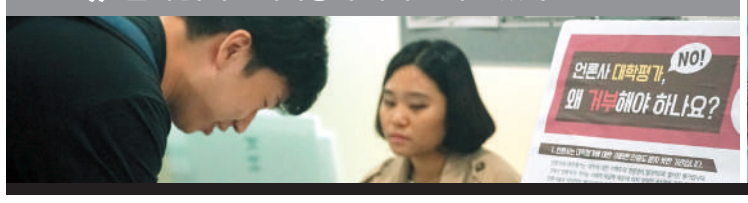
제 1597호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medi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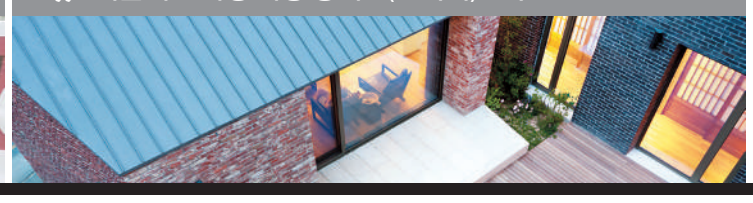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4~5≫ 길게 읽기 – 대학평가 어디로 가고 있나



8≫ 서울시 건축상 대상 정재헌(건축학) 교수



2015학년도 2학기 수시강의 평가 시행안내

수시 강의 평가 진행기간 : 2015. 10. 5(월)~ 2015. 11. 27(금) (8주)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수시 강의평가는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 및 연구문화 개선' 공동 선언식

지난 6일 우리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 및 연구문화 개선' 공동선언식이 있었다. 교수의회 김홍두(정보전자신소재공학) 의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학생은 영어학부 다전공 불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영어학부' 다전공 금지조항, 끝나지 않는 '유사성 논란'

대학주보 디지털 기획 '하나의 경희'로 가는 길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지난 2012년 우리학교가 캠퍼스 간 법적 통합을 이룬 이래로 내년이면 벌써 5년차에 접어든다. '완숙'의 길목에 앞서, 우리신문은 진정한 '통합'을 위해 주시해야 할 도처의 과제들을 '학과 및 계열 구조', '입학', '취업', '대학 행정기관 통합', '캠퍼스 명칭'의 5가지 '대주제'를 통해 짚어본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학과 및 계열 구조' 주제의 '유사학과'와 '다전공 제도'에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추후의 예정사항과 보도 내용은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본부가 다전공 이수금지 학과에 대해 불분명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에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공시한 '2015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에 의하면 현행 제도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 소속 학생은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서울캠퍼스(서울캠) 영어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고, 서울캠 소속의 학생 역시 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다전공 이수금지 학과의 대부분이 예체능과 의료·보건 계열임을 감안할 때 일반학과로는 유일한 금지학과다.

양 캠퍼스 간 다전공 이수금지 학과 문제는 그간 복잡한 논의를 거쳐왔다. 2004년도 이후 서울캠 경영대학·국제캠 국제경영대학 통합 등 사실상의 '중복학과'들이 정리됐다. 지난 2012년부터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양 캠퍼스의 법적통합이 승인되면서 대학본부는 2011학년도 이전의 총 11개 유사전공에 대해 '캠퍼스 간 유사전공으로 지정된 전공/학과'라는 표현을 사용해 서로 간의 이수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전공들은 모두 모집단위가 통·폐합된 상태다.

하지만 올해 초 발표된 양 캠퍼스의 '2015학년도 1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에 따르면 서울캠은 영어학부-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의 다전공 금지 이유를 '운영지침에 의거 다전공 이수를 금지한다'라며 다소 '모호하게' 표현했다. 국제캠은 '다전공 이수 금지 전공 외에는 이수 가능'이라는 말만 있을 뿐, 왜 금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2학기 공시자료 역시 '학생 소속에 따라 이수가 불가능한 전공'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한 상태다.

다전공 금지는 과거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김경희 과장은 "다전공 제도는 학사지원과의 의견보다 해당학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며 "해당 학과에서 이전부터 다전공 금지에 관련된 사항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캠 문과대학 행정실 학사담당 관계자는 "예전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측에서 학생들이 서울에 쏠릴 것을 우려해 두 학과의 이수 금지를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국제 기능올림픽 제빵분야 금메달 수상한
유재희(호텔관광학 2015) 양

"어려운 일도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 냈다"

박기윤 기자 kyoon@khu.ac.kr

#.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국제 기능올림픽에 제빵분야 국가대표로 출전한 유재희(호텔관광학 2015) 양이 금메달을 수상했다. 국제 기능올림픽은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직능 관련 국제대회다. 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유 양을 만나 그의 빵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 양은 "지금까지의 고된 연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인 것 같아 뿌듯했다"며 "주변 사람의 응원, 내 자신의 피나는 노력과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가 있어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담감, 강도 높은 훈련·부상 등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당당히 이겨내고 금메달 따내 기뻐"

국제 기능올림픽은 규정상 한 사람이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평생에 한 번 밖에 출전할 수 없기에 참가자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다행히 올해부터 제과와 제빵이 각기 다른 두 종목으로 분리된 것이 유 양에게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금메달을 획득하기까지 그에게 이런 호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스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매일 이뤄지는 강도 높은 훈련 역시 그를 고되게 하는 요인이었다. 훈련기간 내내 유 양은 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빵 만드는 작업에만 투자했다.

부상도 많이 당했다. 화상을 입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했으며, 손에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다. 무엇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 그는 "기능올림픽에 매진하느라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휴학을 하게 됐다"며 "훈련을 받느라 기존의 학과 생활이나 캠퍼스 생활 등 대부분의 학생들이 누리는 대학생활은 거의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감내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빵을 만드는 일이 즐겁기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빵과 만들기 가장 어려운 빵은 무엇일까. 대체로 모든 빵을 좋아한다는 유 양. 그는 "어떤 빵이든 만들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크로와상이나 바게트 빵이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는 유 양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제빵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며 "요즘은 빵과 관련된 분야의 명인들을 만나 뵙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끝으로 유 양은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정말 많지만 노력하면 전부 해낼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냈고, 이뤄냈을 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며 "우리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仁(인), 다른 존재의 고통을 느끼는 힘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④

전호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1993년 어느 여름날, 중국 호북성에서 학자들이 밤잠을 설칠 만한 일대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국시대 초나라의 공동묘지였던 곽점촌의 어느 무덤에서 대량의 죽간이 출토된 것이다. 죽간이란 대나무를 얇게 자른 조각을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 죽간을 통해 기원전 400년 무렵, 곧 지금부터 2,400년 전의 문자를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죽간에는 仁(인)자가 身(신)자가 위에 있고 心(심)자가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씌어져 있었다. 이 글자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 더 오래된 갑골문자의 身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갑골문의 身자는 사람을 뜻하는 人(인)자에 배가 불룩 나온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곧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것이다. 이 모양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인'은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깃들어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미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니, 아이 덕분에 자신이 뭔가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계산된 마음은 아닐 것이다.

갑골문의 身자는 사람을 뜻하는 人자에 배가 불룩 나온 모양이다. 곧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린 것이다.

함께 출토된 문헌에는 또 다른 모양의 '仁'자가 있는데 위에 人자가 있고 아래에 心자가 있는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가 하면 후한시대의 《설문해자》라는 책에는 千(천)자가 위에 있고 心자가 아래에 있는 모양으로 '仁'을 표기하고 있다. 千은 천 명의 사람을 나타낸 글자로 이때의 千은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곧 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후마니타스 칼리지 권기배 교수
대한민국과 도스토옙스키의 유토피아

≫7면

시선

사설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과거로의 회귀인가

정부가 지난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10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 전환과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전환 이후 약 6년 만의 회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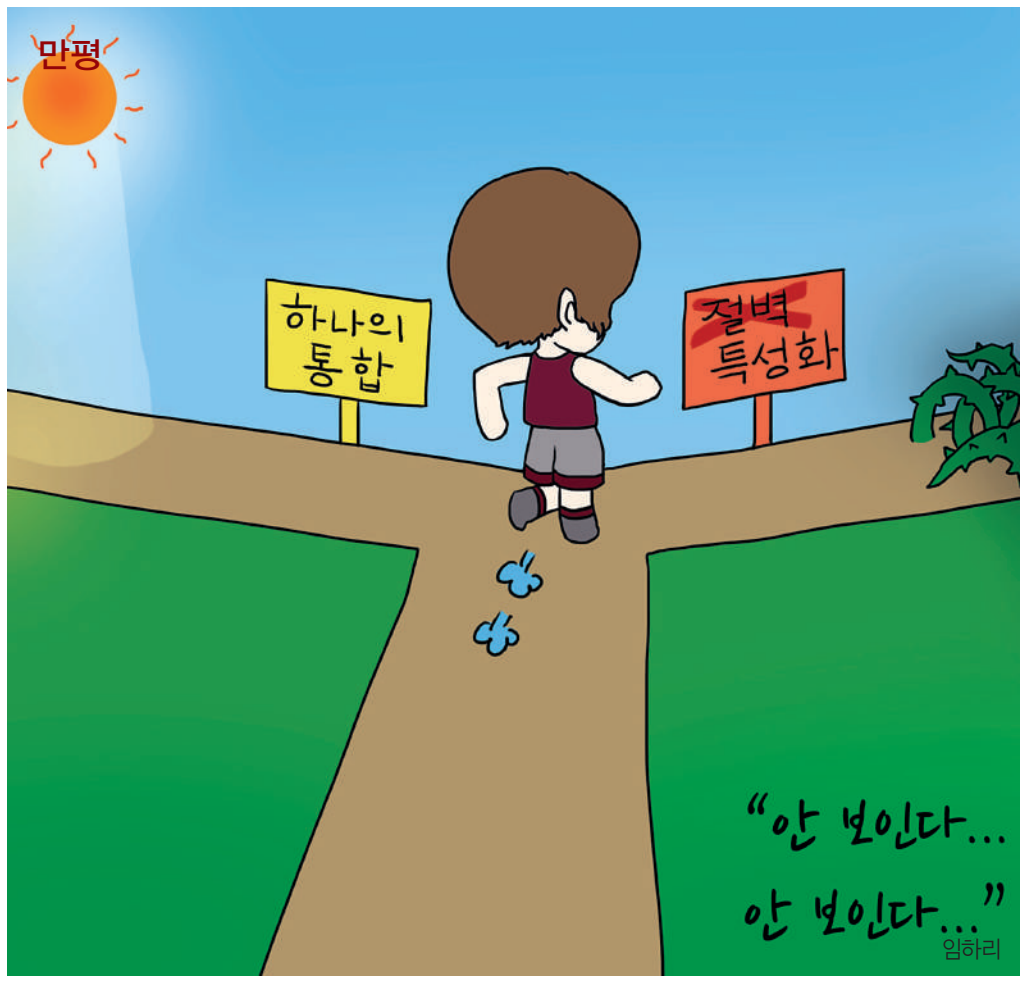
민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인정도서와는 달리 국정도서는 정부가 선택한 단 하나의 관점만이 교육에 반영되기에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가치관이 교육에 투영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동일한 사안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사의 경우에는 그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세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유엔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은 지난 2013년 8월 9일에 열린 제69차 총회에서 문화적권리분야의 특별 조사관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을 위험이 있'으며 '단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다른 시각들을 독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은 '교과서 내 (기술)공간이 가장 제한되는 초·중등과정의 경우 교과서 저자들은 단 몇 문장으로 내용을 서술해야 하므로, 이런 제한점이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게 이념적 메시지를 고취시키는 효과적인-그래서 위험한-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 주도 하의 왜곡과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구조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 대한민국의 교육사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은 유신체제가 개막된 1974년부터였다. 정부수립 이래로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채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유신 이후의 박정희 정부는 소위 '국적 있는 교육'을 주장하며 정권의 정통성과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전사(前史)로 말미암아 많은 대중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조치를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오독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움직임은 유엔이 상기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듯 본질적으로 '정부의 메시지를 최대한 광범위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행동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수 대 진보'가 아닌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의 프레임이자 '획일성 대 다양성'의 대립인 것이다.

국가가 교과교육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게 되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난 2011년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전환은 한국사회의 누적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서 촉발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 일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유사학과 다전공 금지 조항

'어정쩡한' 통합, 피해는 결국 학생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오랜 기간 준비한 디지털 기획 - '하나의 경희'는 일부 '유사학과'의 다전공 금지 문제로 시작한다. 이번 취재의 '백미'를 꼽으라면 기자는 주저없이 외국어대학 이한규 학장은 "외국어대학은 순수학문이다"라는 말을 택하겠다. 이 말은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캠퍼스 및 학과 분류를 마친 학교가 얼마나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겉으론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유사학과와 계열별 정리 문제는 본·분교 통합 당시에 미뤘던 '결정적 선택'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어대학이다. '학과와 강의 존속'을 위해 언제 생긴 지도 모르는 '강제화된 다전공 금지규정'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실된 교육을 외면한 방식이다. '규정이 없다면 학생들이 국제캠을 이탈해 서울캠에 영어를 배우러 갈 것이 우려된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의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학교가 이런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유사학과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특성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계열별 정리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난에 어문계열 학생들은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다전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어대학 재학 인원 약 1,600명 중 한 해 300명 정도가 서울캠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학문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어문계열 학생들을 이공계열 학과가 다수인 국제캠퍼스에 배치한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300'이란 수치가 말해준다. 캠퍼스 간 계열 정리가 확실했다면 유사학과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본·분교 통합 당시 유사·중복학과들에 대한 학교의 선택은 '통합'이 아닌 '학과 특성화'였다. 이는 지금까지 갖가지 문제점, 특히 유사 개설강좌의 강의 수요 측면에서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교육적·학문적 요인을 고려해 해당 학과들을 선택해서 '특성화'한 것이 아니라 '중복학과'였기에 급히 지향점을 개편한 것이므로 사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구성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업을 밀어붙이지 못했다면 거기서 그만 두던가, 움직이기로 했으면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미래를 명확히 내다보지 못한 채 이어진 지지부진한 논의는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다행인 점이 있다면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캠 몇몇 교직원들의 말처럼 양 캠퍼스가 '입학성적'과 '대외적 인식'등, 계열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꾸준히 맞춰왔기 때문이다. 시기 역시 학사구조·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교육부 '프라임 사업'과 맞물려 매우 적절하다.

더 이상 곪아가는 상처를 아플거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살 전체가 썩을 뿐이다. 이제 도려내는 결단은 학교의 몫이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디테일(detail)'에 숨어있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요즘 미디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말로 풀어쓰면 '눈에 보이는 큰 문제보다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부분이 문제를 일으킨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라는 구절에서 변형된 것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존과 차별화되는 어떤 변화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이 특히 더 중요하다. 구체성이 없는 '합의'나 '협약'은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순히 그것을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해오던 대로 행동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 원래 행동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면, 그동안 취해왔던 '달콤함'을 버리고 더 많은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관성'을 거스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 한다면 강제력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지난 6일 우리학교 교수의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교수와 대학원생의 철저한 갑을관계에서 기인하는 대학원생 인권침해문제는 사실 비단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학교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로 노력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바로 '디테일'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부당한 일을 당할 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연구에 대해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합의문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좋은 말'을 나열해 놓는 합의문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 '합의문'도 의미가 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지난 2011년 미래협약과 올해 노조에서 발표한 '존중합의문'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협약과 합의문은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상 '사장'됐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결여된 반쪽짜리 '협약'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사라졌고, 현재까지 바뀐 것은 당연히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닌 본질 속에 있는 '디테일'이다. '디테일'이 없다면 그 속에 숨어있던 '악마'는 다시 활개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식'이 지난 미래협약과 존중합의문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다.

자회사 통한 고용으로 청소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0. 1 ~ 10. 8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11일 현재 진행 중인 SPACE21공사 관련 장애학생 이동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주최로 개최됐다.**("장애학생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온라인 대학주보, 2015.10.5)**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SPACE21 건설사업단, 관리팀 그리고 학생지원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진진주 직원은 "숲길의 경사로는 경사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도서관 옆길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 길도 경사가 상당하고 동선이 복잡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PACE21 건설사업단 김태호 직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만 도서관 옆길에 미끄럼 방지처리를 해 학생들의 위험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미끄럼 방지처리작업은 인력부족으로 녹원 공사가 완료된 후 추석 이후에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학 교수들의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희대 교수들도 이에 동참했다.**(경희대 교수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유신 시대 돌아가는 것"/뉴스1, 2015.10.5)** 경희대 사학과 교수 9명 등 교수 116명은 5일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는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시도"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사를 밝힌 이래 교육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고 각 언론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이런 모습은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사회의 보편적인 이해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대를 퇴보시키는 시도"라며 "우리는 국정교과서 발행으로 한국사회를 1970년대 유신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희대가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 학교법인 소속 자회사를 세워 이들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경희대, 청소노동자 고용불안 쓸어낸다/한겨레, 2015.10.5)**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고용 불안 등을 완화하고 대학의 무분별한 외주화 관행을 바꿀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간 씽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5일 개최한 '사다리포럼'에 참석한 경희대 정진영 대외협력부총장은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인간적 대우 아래 일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른바 '경희 모델'을 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내년까지 자회사를 세워 264명의 청소 용역 노동자를 자회사가 고용할 계획이다.

자회사는 대학의 시설과 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한편 서울캠퍼스가 있는 회기동 일대에 문화·예술·평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소셜 벤처' 형태로 만들어진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1면에서 이어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윤재학 학부장은 현재의 규정에 대해 타 전공 소속 학생에 관한 규정 해제는 '긍정적'이나 영어학부-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간의 다전공 허용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교수는 "관련 논의가 언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향점'은 다르지만 배우는 것이 비슷한 두 전공의 학생들의 다전공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좀 더 깊은 속사정이 숨어있다. 현재 외국어대학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의 수요'에 대한 측면이 그것이다. 외국어대학 행정실 오상민 행정실장은 "이공계열은 서울캠 다전공자가 적겠지만, 어문계열인 외국어대학 내에선 300명 가량 된다"며 "다전공 금지조항이 없어진다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을 선호하므로) 영어를 배우러 더욱 서울캠에 몰리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강의개설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성화'의 방향이 학생들에게 외면받으면서, 결국 제도를 통해 강의개설 수요를 조절하지 않으면 학생 숫자 유지와 학과의 존속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다. 차후에는 교직원과 교수의 숫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최초 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1980년 신설된 '영어영문학과'를 모태로 시작됐다. 당시 서울캠에는 이미 문과대학 내에 영어영문학과가 있었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분·본교 논란이 일자, 학교는 2005년 국제캠 '영어학과'를 '영미어학부'로, 2012년 분·본교 법적 통합 당시 '영미어학부'에서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영미문화 전공)'로 학과명을 재변경했다. '통합'이 아닌 '특성화'의 길을 택한 것이다. 외국어대학 이한규(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학장은 "당시 학과통합이 시행됐다면 유사학과가 많아 너무 큰 파동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두 학과만의 통합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성화 방향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정수현(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0) 양은 "명칭 변경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이름을 생뚱맞다고 생각했었다"라며 "지금의 방향성도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홍(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3) 군 역시 "사실 '글로벌'한 '커뮤니케이션'이 무슨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는다"며 "영미 문화트랙의 일부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특성화된 과목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학부 송창섭 학부장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영미어문을 전공한 학생은 영어학부의 영문학과 겹치는게 너무 많아진다"며 "수원 교수님들이 우려하는게 아마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캠퍼스 학사지원과에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공시한 '2015학년도 2학기 다전공 이수 신청 및 포기 안내' 에 의하면 현행 제도에서 국제캠퍼스 소속 학생은 학과에 상관없이 모두 서울캠퍼스 영어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고, 서울캠 소속의 학생 역시 국제캠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를 다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유사성'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외국어대학 측은 '장기적으로 계열 간·학과 간 통합이 돼야한다'고 말한다. 이 학장은 "대학교육에 있어서 '외국어'는 응용이 아닌 '순수학문'이다"라며 "이공계열보다 인문·사회계열과 가까이 있는 편이 '시너지'의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문제시되는 두 학과 역시 '영어'라는 외국어를 매개하는 공통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합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 박광헌 교무처장은 "어떤 형태의 결단이 됐건, 대학 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은 결실을 보기까지 기본이 7~8년이므로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해당 다전공 관련 사항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 더 나아가 캠퍼스의 계열별 특성화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다"고 말했다.

공영일 이사, 17대 이사장으로 새로 선임 김용철 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

보도팀 khunews@khu.ac.kr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공영일 이사를 제17대 이사장으로, 조여원 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일 이사장은 1931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해군사관학교 교수와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우리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우리학교 총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미원기념사업회 위원장직을 함께 수행 중이다. 조여원 상임이사는 1950년 서울 출생으로 우리학교 동서의학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같은날 김용철 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학생상담 한 학기 이상 기다릴 때도 서울, 전임 상담원은 단 1명?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우리학교 학생수 대비 전임 상담원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학교 전임 상담원 수는 현재 총 6명으로 이 중 국제캠퍼스(국제캠)에 4명, 서울캠퍼스(서울캠)에는 2명이 배치돼 있다. 특히 서울캠 상담원 수가 부족하다. 위기개입과 자살상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맡고있는 학생생활연구소소장을 제외하면 서울캠의 경우 재학생이 13,000명이 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신문이 지난 2010년 이미 상담인력 부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개선은 없는 상태다.〈대학주보 1474호 2010.10.29〉

현재 학생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캠 '학생생활연구소'에는 객원 상담원을 포함해 하루에 3명의 정도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학기 이상을 기다리기도 한다. 철학과 A양은 "3월 말에 신청했지만 상담을 받으려면 한 학기 이상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한 학기가 지나고 연락이 왔지만 그때는 이미 상황이 해결된 상태였다. 좀 더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이 규모가 비슷한 사립대학 5개 학교(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의 상담인력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전임 상담원은 3~4명, 객원 상담원의 수는 6~7명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학교는 국제캠 '학생생활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 상담원이 4명에 객원 상담원은 없고 서울캠의 경우 '학생생활연구소'에 전임 상담원 2명, 객원 5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생활연구소 오윤자 소장은 "타 학교와 달리 우리학교는 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부재로 인해 인원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다"라며 "하지만 객원을 포함한 상담원의 수나 전문성은 양호하며 자살 등 긴급히 필요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소장은 "전임상담원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학본부에 요청한 적이 있지만 상담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실제 이뤄지는 상담 수를 늘리려면 공간과 예산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사무처의 인사팀은 "현재 학교의 제반 사정으로 교직원 충원과 보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전임 상담원이 한 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인력 충원 요청은 없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다음 인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캠퍼스 2015-2 사회봉사과목 이수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이수 과목 "사회봉사 1,2,3" 강좌의 학점이수시 공지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적용대상		– 2015-2학기 현재 사회봉사 1, 2, 3을 수강신청한 2004학년도 이후 입학생(03학번(포함)이전 학생은 별도로 문의)
과목명		사회봉사1, 사회봉사2, 사회봉사3 (단계별 이수)
이수구분		자유이수(2016학년도부터 자유선택으로 변경)
학점체계		1학점 (학기당 1학점, 재학 중 3학점까지 이수 가능)
이수절차		수강신청 ⇒ 인정되는 봉사활동 기관 검색 및 선정 ⇒ 사회봉사활동 ⇒ 학점인정을 위한 제출서류구비(봉사활동 확인서, 학점이수신청서, 결과보고서, 활동사진 및 설문지 작성) ⇒ 정해진 기간 내 제출
학점 인정 요소	※봉사 인정 기관	● 교외기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안전행정부 산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www.vms.or.kr) [보건복지부 산하]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서울시] 봉사활동 확인서는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것만 인정됨. ● 교내기관 국제교육원 한국어도우미, 입학관리처 모교방문단, 지구사회봉사단 봉사프로그램, 학생지원처(경희봉사단, 입학식도우미,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자연재해 복구활동, 장애학생지원센터, 교내 캠페인), 경희부속 중, 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자연사박물관 내 자원봉사, 경희의료원내 자원봉사,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실천활동단, 글로벌센터 IFCC 한국어도우미)
	봉사활동인정기간	2015. 3. 1 ~ 제출일 전까지 활동한 실적
	서류제출기간	2015. 11. 16(월) ~ 2015. 11. 27(금) 오후 5시 30분 마감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1. 인정시간 : 32시간 이상(32시간 이상도 1학점만 인정) 2. 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만 인정 3. 헌혈증은 1장당 4시간 봉사시간으로 인정됨. 단, 봉사인정기간(직전 학기 + 수강 신청한 학기) 동안 최대 2장(총 8시간)까지만 인정 가능함.
학점 인정 요소	학점인정기준 및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아래 경우에 유의. 예) 하루에 헌혈(4시간)과 다른 봉사 7시간을 한 경우, 총 11시간이 되므로, 3시간은 제외하여 계산됨 4. 재학, 휴학, 복학에 상관없이 2015. 3. 1일 이후에 한 봉사활동부터 인정 5. 한국어도우미는 서류제출기간 전 지구사회봉사단에서 국제교육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자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번 학기에 활동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국제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모교방문단은 재학 중 1회만 학점인정 가능 7. 교내 봉사의 경우 봉사 확인서는 활동 일자별로 시간을 기입하여(1일 8시간 이내) 소속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을 원하지 않을시 복사본을 제출하되 원본대조를 위해 원본을 꼭 지참) 8. 교외봉사는 반드시 인터넷(동행프로젝트, VMS, 1365)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상세내역"으로 "전체출력", 봉사기관별로 개별 발급 x) 9. 사회봉사 제출 서류(학점이수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 설문지) 양식은 사회봉사 커뮤니티(http://club.khu.ac.kr/khusge)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타	1. 본과목은 P / F 과목입니다. 2. 사회봉사 과목은 연간제한 학점에 포함 되지 않음. 3. 2014-1학기부터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F를 받았을 시 성적에서 자동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점에는 영향없음) 4. 2004학번 ~ 2010학번 학생이 사회봉사 1을 이수할 경우 문화세계지도 자영역(핵심교양)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5학년도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에 문의바랍니다.

– 사회봉사커뮤니티 : http://club.khu.ac.kr/khusge
– 지구사회봉사단 홈페이지 : http://khgsc.khu.ac.kr
※ 기타 문의사항 : 지구사회봉사단(생활과학대 612호)으로 방문 또는 전화 02)961-0673, 2213~4 / e-mail : leehw53@khu.ac.kr(이환호)

지구사회봉사단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5.11.02(월) ~ 12.11(금)
· 접수기간 : 2015.10.12.(월) ~ 2015.10.27.(화)

● Level Test
· 영어회화 : 10.27(화), 10.28(수) 17:30
· 일본어·스페인어회화 : 10.27(화) 17:15
· 중국어회화 : 10.27(화) 18:10

● 강의시간표

	7:45 – 8:45		18:00	18:30	19:20	19:30	19:50	20:00	20:50
월	영어/일본어/중국어	스페인어 초급2	프랑스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1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화		스페인어 초급1	프랑스어 초급2						
			스페인어 초급2			스페인어 중급			
			독일어회화 초급			독일어회화 초급			
		베트남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Academic Writing(Essay)						
				Ted Talk Book Club					
수		스페인어 초급2	프랑스어 초급1						
			스페인어 초급1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목		스페인어 초급1	프랑스어 초급2						
			스페인어 초급2			스페인어 중급			
			독일어 회화 초급			독일어회화 초급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금		베트남어 초급	베트남어 초급						
			Academic Writing(Essay)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대학평가’에 매몰된 대학정책, 경희 고유의 교육철학 반영하기 위해 고민할 때

길게 읽기 – 대학평가 10년 돌아보기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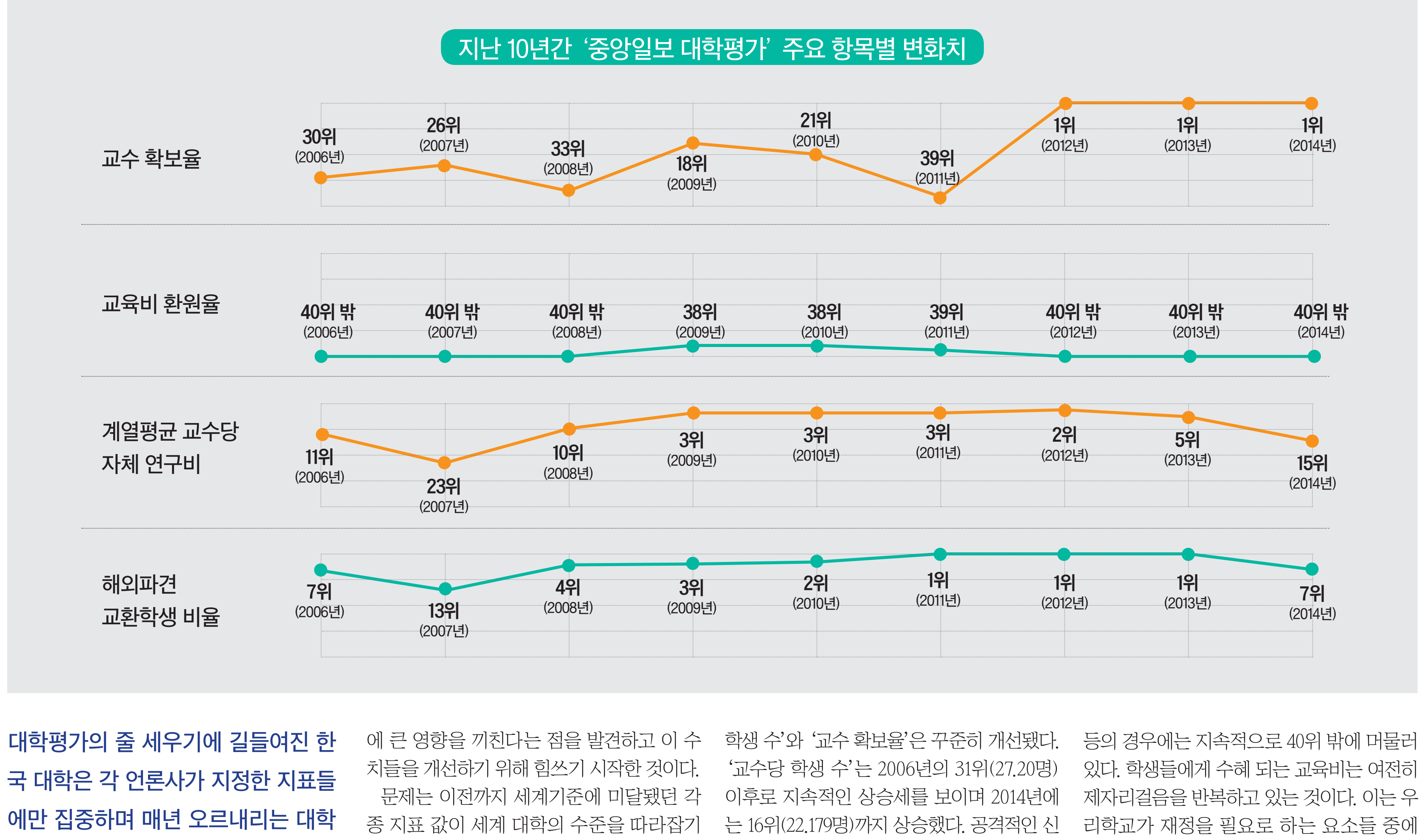
대학평가가 지금과 같은 선정성을 띠게 된 것은 1984년,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U.S.News & World Report)’가 정량 지표를 기준으로 연례 대학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 대학평가에서 유수의 대학들은 정형화된 지표들에 맞춰 줄 세우기를 강요당했고, 대중은 ‘대학을 평가한다’는 이 새로운 개념을 마치 대학 세계의 올림픽쯤으로 여기며 흥미롭게 지켜봤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러한 니즈를 간파한 나름 영향력 있다는 세계의 매체들은 본격적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는 ‘이벤트’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대학평가도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식 접근법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시작됐다. 1994년에 시작한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대표적인 사례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가뜩이나 입학 성적 순으로 대학을 줄 세우던 한국 대중의 구미를 충족시키며, 1982년부터 실시되어오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보다 훨씬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로 촉발된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평가는 비단 대중뿐만 아니라 대학의 마음도 뒤흔들어 놓았다. 초창기에는 ‘대학이 일개 언론에 의해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학평가 결과에 시큰둥한 모습을 보이던 국내 일부 대학들마저, 대학평가가 해를 거듭하며 기존에 통용되던 ‘대학 서열’을 전복시키는 어떤 경향성을 담아내기 시작하자 시나브로 대학평가 맞춤형 정책들을 쏟아내며 언론사의 장단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평가, 초창기의 ‘성과’ 하지만 곧이어 불거진 ‘문제점’

한국 대학사회를 파고든 언론사들의 대학평가가 해외 미디어의 대학평가지표를 중요하게 참고했던 덕분에, 초창기 시절만 하더라도 국내의 대학평가는 대한민국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국내 대학들에 세계적 기준 지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들이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정 정도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많은 대학들이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아왔던 ‘교수당 학생 수’나 ‘교육비 환원율’,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등의 지표가 당장의 대학 브랜드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 수치들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평가의 줄 세우기에 길들여진 한국 대학은 각 언론사가 지정한 지표들에만 집중하며 매년 오르내리는 대학평가 순위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비전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전까지 세계기준에 미달됐던 각종 지표 값이 세계 대학의 수준을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초체력을 기른 후에는 각 대학 간의 변별적인 가치와 철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이 지향하는 바를 펼쳐내며 저마다의 학풍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의 줄 세우기에 길들여진 한국 대학은 각 언론사가 지정한 지표들에만 집중하며 매년 오르내리는 대학평가 순위에 일희일비하는 근시안적 비전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학교의 지난 10년 역시 이 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실 우리학교는 국내 주요 대학 중 가장 먼저 ‘평가’ 전담 부서를 도입할 정도로 대학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대학 중 한 곳이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평가 중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경유해보며 ‘대학평가에 대처해온 우리학교의 지난 10년’을 한 번 되짚어 보자.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된 2006년 이후로, 지난 10년 간 우리학교의 정책은 평가지표에 맞추어 뚜렷하게 변화해오고 있다.

먼저 ‘교육여건 및 재정’ 항목의 ‘교수당 학생 수’와 ‘교수 확보율’은 꾸준히 개선됐다. ‘교수당 학생 수’는 2006년의 31위(27.20명)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16위(22.179명)까지 상승했다. 공격적인 신규교원 임용의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교수 확보율’도 2006년의 30위(0.730%)로부터 출발해 2012년 이후로는 꾸준히 100%의 확보율을 보이며 1위에 자리 잡았다.

대학평가지표에 발 맞춰 온 지난 10년의 명과 암

‘계열평균 교수당 국제논문 피인용’ 부문도 2005년의 21위에서 2014년의 9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우리학교 발전위원회와 기획위원회에서 꾸준히 ‘SCI연구실적 관련 인센티브’를 장려하는 등 ‘연구 성과 중심 정책’을 이어온 덕분이다.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 항목의 경우에도 2006년 11위, 2007년 23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까지 5위로 뛰어오르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모든 부문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가령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육비 환원율’,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40위 밖에 머물러 있다. 학생들에게 수혜 되는 교육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가 재정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 중에서 교수 초빙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교수확보율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표임은 분명하지만, 그 한 두 가지 지표에만 올인(all-in)하며 다른 부문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은 결국 학교의 정책 방향성이 종합적인 교육환경을 아우르는 대신 대학평가의 특정지표들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특히 ‘국제화’ 지수가 도입된 2006년 이후로 세부항목별 순위를 살펴보면 대학평가에 경도된 우리학교 운영의 골격을 그려볼 수 있다. 우리학교의 ‘국제화’ 지수는 2006년의 9위와 2007년의 16위로 출발한 이후 2011년 1위, 2012년 2위, 2014년 4위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처음으로 ‘국제화’ 지수가 평가지표에 추가된 이후로 우리학교의 영어강의 비율은 2006년 5.427%에서 2014년 20%로 크게 증가했다. 명백히 평가지표를 좇았던 이 행보는,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었다. 억지로 영어강의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영어강의라는 편법까지 동원하며 ‘수치 개선’에 힘썼지만 각 학과마다 영어강의가 전혀 필요치 않은 과목들까지 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면서 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학위 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도 마찬가지다. 이 수치는 2006년의 1.64%에서 2014년에는 8.199%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입학요건 중 한국어능력치를 ‘TOPIK 3급 이상’이라는 낮은 기준으로 적용해 외국인 학생들을 ‘질적 선별’이 아닌 ‘양적 확충’으로 끌어들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TOPIK 3급’은 ‘공공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기초적 언어 수준’으로, 전문 학술용어를 소화해야 하는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엔 벅차다는 의견이 내외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형편이다. 연세대의 경우 TOPIK 5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그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난다.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항목도 우리학교 국제화 정책의 아픈 곳을 드러낸다. 2014년 기준으로 총 2,731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61%(1,689명)가 중국인 유학생으로 집계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에서 32위에 머무른 것이다. 이것이 우리학교의 국제화가 실상은 ‘중국화’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학내에서 꾸준히 들려오는 이유이자, 2014년도 국제화 지수 전국 4위 대학의 가려져 있는 실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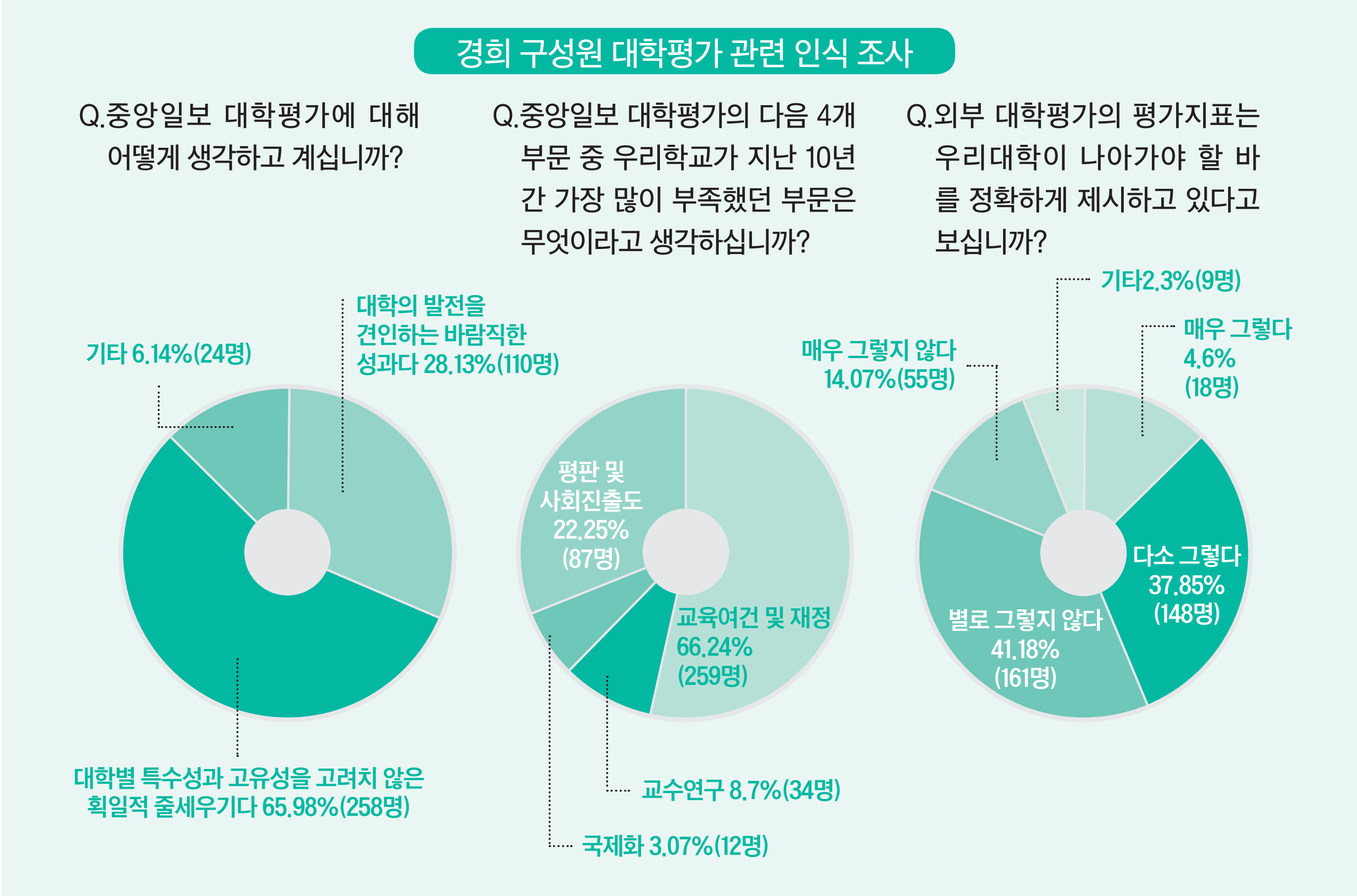
무리한 재정 투입의 부작용, 그리고 구성원의 호소

대학평가 중심으로 맞춰져 온 우리 대학의 정책 기조는 결국 2014년에 접어들어 한 차례의 큰 역풍을 맞게 된다. 대학 재정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가운데, 그동안 재정을 투입해 견인해오던 각종 대학평가 지표들이 한꺼번에 하락한 것이다.

2014년은 대다수 행정부서의 예산이 전년대비 많게는 90%에서 적게는 50%까지 삭감되었던 해다. 심지어 국제교류처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해외파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교비예산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학내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마비 단계에 접어든 해였다. 이 여파로 지난 2006년의 30위에서 2013년 7위까지 상승하던 ‘도서자료 구입비’는 2014년에 이르러 20위까지 하락한다. ‘계열평균 교수당 자체 연구비’도 마찬가지다. 2012년 2위, 2013년 5위를 차지했던 이 지표는 2014년에 15위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해외 파견 교환학생 비율’은 어떨까. 2011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이 지표에서 우리학교는 2014년에 7위를 기록한다.

이런 결과는 결국 지표를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미래적 안목’은 고사하고 당장의 학교 재정 상태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실’ 보다는 순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외연’에만 치중한 채 단기 사안들에 예산투자가 과잉으로 이뤄져, 결국 제대로 된 ‘효과’가 정착되기도 전에 학교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대학의 이러한 ‘대학평가 몰입 정책’에 대해 구성원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우리신문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교수·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희 구성원 대학평가 관련 인식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자.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4개 부문 중 우리학교가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부족했던 부문’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502명의 응답자 중 66.41%(259명)가 ‘교육여건 및 재정’을 꼽았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2013년 우리신문이 진행했던 동일한 조사에서도 똑같이 도출됐던 응답이다. 당시 ‘우리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142명 중 53명(37.32%)이 ‘교육여건 및 재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은 2년 째 여전한 답보 상태인 셈이다.

한편 ‘대학평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한 목소리로 ‘외연보다는 내실’을 주문했다. 한 응답자는 “외부평가보다는 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 인프라·교육환경 개선이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일회성 대학평가에 몰입하다가 내실이 허약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구성원은 “본질적인 것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일회성 지표 상승을 위해 재원 투자를 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외부평가에서 SCI논문 실적 등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정작 연구여건은 열악하다’는 지적을 하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또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한 구성원은 “소비성(일회성) 지표 향상을 위한 예산의 과다투자로 재정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하면서 대학평가 중심의 정책기조에 대해 “단기적인 성과 만들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중앙일보 대학평가, 조선일보-QS아시아 대학평가, QS세계대학평가,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대학평가, THE세계대학평가 등 무수한 대학평가들이 난립하며 대학에 각종 정량적 지표들을 일률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것이 현대 대학사회의 풍경이다. 하지만 이들이 들이대는 그 ‘정량적 지표’는 언제나 정답인 것인가?

무수한 대학평가에서 대학이 참고해야 할 것은 단지 ‘지표가 보여주는 현황’ 뿐이다.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저마다 ‘대학은 어떠해야 한다’ 는 관점 하에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은 그저 그 관점들만을 포착해서 장기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튼튼하게 가꿔가면 되는 것이다

‘정답’ 아닌 대학평가… 이제는 대학평가를 ‘평가’ 해볼 때

그렇지 않다. 해외 대학평가 결과를 살펴보자. 올해 우리학교는 QS세계대학평가에서 295위(국내 8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THE세계대학평가에서는 401-500위(국내 9위)를 기록했고,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세계대학평가에서는 515위(국내 10위)를 기록했다. 동일한 대상인 ‘2015년의 경희대학교’가 평가 주관사의 가중치 분포 추이에 따라 그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학평가에서의 ‘순위’라는 것은 가중치를 어디에 두고 집계하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변동되는 수치일 뿐, 결코 의미 있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대학평가 순위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입장을 대학주보가 수년 전부터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순위는 쓸모없다. 무수한 대학평가에서 대학이 참고해야 할 것은 단지 ‘지표가 보여주는 현황’ 뿐이다. 세계 유수의 기관들이 저마다 ‘대학은 어떠해야 한다’는 관점 하에 대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 대학은 그저 그 관점들만을 포착해서 장기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튼튼하게 가꿔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교수연구, 학생만족도, 졸업생의 사회진출도, 사회평판 등은 양적인 투자가 아니라 비전과 내실이 있는 학교 정책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교육여건 및 재정문제 역시 단기적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탄탄히 구축할 때에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지표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을 우리대학답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은 점차 사라지고 결국 우리대학의 미래를 외부의 잣대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자화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학평가에 대처하는 우리학교의 지난 10년사는 결국, 제대로 된 학풍과 교육철학이 없이는 학교가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남는다. 이제 대학 측은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자문해봐야 할 때다. 성장일변도를 지향해온 끝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2016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구 분	일 정	일 시
정원내 (내국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5. 10. 12. (월) 10:00 ~ 10. 16. (금) 17:00 까지 ※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전형 (면접, 실기평가 등)	2015. 11. 07. (토) 10:00
	합격자 발표	2015. 12. 04. (금)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 01. 05. (화) ~ 01. 11. (월) 16:00 까지
정원외 (외국인)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2015. 10. 01. (목) ~ 10. 30. (금) 17:00 까지 ※ 방문 제출은 공휴일 및 주말 제외
	합격자 발표	2015. 11. 30. (월) 13: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6. 01. 05. (화) ~ 01. 11. (월) 16:00 까지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에 공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http://gskh.khu.ac.kr) 공지사항 또는 ‘입학’메뉴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6 전기 국제대학원 장학생 모집

- 모집분야 : 국제통상협력학과 / 국제개발협력학과 / 국제경영학과
-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 지원자격 : 석사과정 – 국내 · 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전형방법
  국내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해외거주 지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 지원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하며, 일자는 별도 통지
- 전형일정
  서류접수 : 2015년 10월 12일(월) ~ 11월 4일(수)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12시 30분
  해외 거주자 인터뷰 : 개별안내
- 입시설명회 : 2015년 10월 26일(월) 19시 30분, 국제학관 103호
- 합격자발표 : 2015년 11월 중
- 제출서류
  · 입학원서 (국제대학원 홈페이지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양식 포함)
  ·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평균, 평점 및 백분율 성적 기재)
  · 추천서 2인 각 1부씩 (국문가능, 자유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등록번호 기재)
  · 반명함판 사진 1매 (3cm*4cm)
  · 전형료 : 70,000원 (E-mail 및 우편접수 시 온라인 입금)
    ※ 입금계좌: 하나은행 906-910002-76604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 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가산점 부여, 성적표 1부
  · 국문/영문 번역 공증서(졸업증명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영어권 이외의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원서접수
  – E-mail 접수 : gsp@khu.ac.kr
  – 우편접수 :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재중’ 게재 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2016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전공

구분	학과	전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자산관리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경찰·안전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 장학제도

구분	장학금	지급기준
공무원장학	수업료 2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
공공기관장학	수업료 2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수업료 3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수업료 20%	사이버대학교(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조교장학	등록금 전액또는 일부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임용된 자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특별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10. 19(월) ~ 11. 6(금)
  · 전 형 일 : 2015. 11. 7(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특별전형 – 전형료 없음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문의처
  · 전화 : 02-961-0905 · 홈페이지 : 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2016학년도 전기 전액장학 신입생 모집(주간)

평화복지대학원
The 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전원 장학금(학비, 숙식비, 교재비) 전액 지급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해외대학 복수학위 프로그램 운영
- 대학원 독립 캠퍼스

- 모집과정 : 석사과정 (전액장학)
- 모집전공 : 국제평화 / 아태지역 / 대안정치거버넌스
- 전형방법 : 논술 및 면접
- 원서접수기간 : 2015년 11월 9일(월) ~ 11월 18일(수)
- 입시 일정

일 자	전형 내용
11월 18일(수)(우편소인이 찍힌 서류까지 인정)	서류마감
11월 25일(수)	필기시험
11월 30일(월)	1차 면접
12월 2일(수)	2차 면접
12월 11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 http://gip.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 의 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10월 둘째 주(10.12~10.16)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미래는 준비된 자의 세계”

-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 사 제 목	구 분	일 시	장 소
세아상역 채용설명회(외국어 우수자 우대)	채용설명회	10.12(월) 15:00~17: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동원그룹 채용설명회 및 면담 (외국어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	채용설명회	10.13(화) 13:0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채용면담	10.13(화) 15: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KOTRA 채용설명회(채용형 인턴)	채용설명회	10.14(수) 15:00~17:00	청운관 B117호
한솔그룹 채용면담 (졸업 예정자인 경우 2016년 2월만 해당)	채용면담	10.14(수)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시작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 취업특강

특 강 제 목	일 시	장 소
조직이해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이정호 교수님)	10.13(화) 12:00~14:00	청운관 B117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전은영 교수님)	10.16(금) 17:30~19:30	청운관 B117호

-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 설 턴 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취업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메뉴에서 신청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Off Line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상담 전, 후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총 2회,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 참조)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년도 하반기 공채대비 모의면접

기업과 직무에 적합한 면접노하우를 제공하고, 성공면접을 위한 사전준비를 통해 2015년도 하반기 채용 최종합격률을 높인다.

- 대상자 : 2015 하반기 공채 서류 및 인적성 통과자 또는 2015 하반기 공채 지원자
- 내 용 : 모의면접 특강, 인성면접, 토론면접
- 일시 및 장소

구분	일시	시간	장소	기타
모의면접 특강	2015. 10. 23(금)	17:30~18:30	생명과학대학 시청각실	특강자 : 노동섭 부처장 모의면접 신청자 필수참석
인성면접	2015. 10. 29(목)	12:30~17:00	다목적세미나실	
토론면접	2015. 10. 30(금)		드림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5. 10. 12(월) ~ 10. 22(목) 09:00~17:00
  나. 제출서류
    1) 모의면접 신청서(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2) 2015 하반기 공채 서류 및 인적성 합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1부
  다. 제출장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 면접인원 : 80명(1일당 인성면접 20명, 토론면접 20명)
  ※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015 하반기공채 서류 및 인적성 통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진행방법

	시간	인성면접(다목적세미나실)	토론면접(드림존)	비고
1조	12:30~13:00	OT(진행자 : 고하나 팀장)		– 팀당 최대 5명 – 면접실별 면접관 각2명
	13:00~13:45	면접	면접	
	14:00~14:45	면접	면접	
2조	14:30~15:00	OT(진행자 : 고하나 팀장)		
	15:00~15:45	면접	면접	
	16:00~16:45	면접	면접	

-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유의사항
  –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10월 27일(화)요일 15:00 전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 모의면접 당일 날 늦을 시에는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성의 있게 작성해주십시오.
  – 면접복장은 정장착용입니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기획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여 바로 행하는 것, 경희의 정신

60년 상록원 역사와 삼정행(三正行)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 한 동안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행렬이 이어져 '빨리 지나가고 싶은' 소음의 장소였던 상록원이 지난 18일,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왔다. 넓게 펼쳐진 초록색 잔디광장은 노란색의 문화복지센터 건물과 유쾌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파란 가을 하늘까지 더해져 요즘 청운관 주변에선 그야말로 색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상록원이 새 단장을 한 뒤 벤치에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모습도 늘었다. 상록원의 새로운 모습에 구성원들이 대체로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언제부터 어떤 모습으로 학생들의 곁에 존재해왔는지 알아봤다.

상록원은 1956년에 개교 7주년을 기념해 '녹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됐다. 이 공간은 학생들에게 학술탐구에 필요한 휴식처와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장소를 마련해주고자 했던 조영식 학원장의 바람에 의해 태어났다.

개교 10주년인 1959년에는 녹원 중앙에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새소식판(키오스크)가 설치됐다. 당시에 문리과대학, 법과대학, 정경대학, 체육대학의 네 단과대학이 새소식판을 종합 게시판으로 이용했다. 소식판에는 학교의 각종 홍보물들이 게시됐는데 학생들은 등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홍보물을 접했다.

상록원, 1956년 개교 7주년 기념 '녹원' 이라는 이름으로 조성

이 시기의 녹원은 여러 용도로 이용됐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소였고 화창한 날에는 야외수업이 진행됐다. 때로는 교련의 장소로 이용됐으며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당시 녹원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한다는 이순자(생물학 1961) 동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땐 정확한 이름은 몰랐지만 동아리 모임을 자주 했던 곳이다. 벽보(게시물)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가끔 체육대학 남학생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던 기억도 난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자주 들렀던 장소였다."

197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정종태(정치외교학 1976) 동문 또한 녹원을 '특별하지는 않지만 자주 들렀던 장소'로 기억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시의 녹원을 회상한다.

"본관 앞 광장처럼 동기들과 놀고 싶을 때 딱 떠오르는 공간은 아니었지만 자주 가서 앉아있긴 했다. 야외수업을 몇 번 했던 기억도 있고, 언제는 결혼식 하는 것도 봤다. 그 쪽이 미관상 좋아서 결혼식을 종종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편한 쉼터 역할을 했던 녹원은 2000년에 청운관이 건설되면서 크게 변모한다. 깨끗하게 재단장된 것은 물론이고 정식 명칭도 상록원으로 탈바꿈 한 것이다. 이 시기에 이전까지 새소식판이 있던 중앙 4개의 기둥에 8개의 대리석판이 붙어있는 흰색 탑이 세워졌다. 현재 상록원 중앙에 있는 '청운의 탑'이 그것이다. 대리석판에 새겨져 있던 글들은 경희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도 청운의 탑에 적혀있다. 8개의 대리석판에 새겨진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① 현재 청운관 앞 상록원 모습
② 1950년대 후반 '상록원'의 모습
③ 1967년 상록원 모습

①삼정행(三正行) 하라. 그 속에 모든 답이 있다. 바로 알고(正知) 바로 판단하여(正判) 바로 행하면(正行) 모르는 것도 없고(不可知)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없다.(不可解) 그러기에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해 내야만 한다.
②우주의 본질과 현상변화는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이기에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어지는 것이다.
③인간은 역사 문명의 주체요 개척자이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꿈이 있다. 고민이 있다. 인류역사 되돌아보면 참다운 삶의 길 열자.
④젊은이들이여 낭만과 사랑, 꿈과 호연지기를 아는가.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도 밝아진다. 대인은 진리를 말하고 소인은 득실을 따진다.
⑤화합하려거든 시비를 논하지 말라. 대성하려거든 고난에 도전하라. 신뢰와 협동 속에 모두의 번영이 있다.
⑥우의와 신의를 저버릴 때 사회는 어두워진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는 상종하지 말라. 가정이 해체될 때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
⑦물질문명 인간을 경시하고 과학기술 문명 인간을 소외한다. 인간의 정신문화 물질문명 조화시켜서 아름답고 풍요하고 보람있는 사회 이루자.
⑧새 천년 바라보며 Neo-Renaissance 횃불 들자. 21세기 인류사회의 선도자 되어 유엔 중심의 인간적 인간 사회 문화적 복지 사회, 보편적 민주사회, 지구공동사회 이루어내자.

이 문구들은 조 학원장이 그의 저서와 강연들을 통해 자주 강조했던 사상을 상록원 건설단이 골라 새겨 넣은 것이다. 참된 인간상을 얘기하는 유교적 사고방식과 물질문명에 매몰된 인간성의 회복을 바라는 그의 염원이 이 8개의 대리석판에 녹아있다고 한다. 특히 마지막 7, 8번 째 대리석판에 적힌 글들에는 우리학교가 물질문명에 파묻힌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오늘날까지도 구호로 내걸고 있는 'Neo-Renaissance'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계장은 대리석판에 새겨진 글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대리석판에 새겨진 '삼정행'은 80년대 초반부터 조 학원장이 강조했던 덕목이다. 생각없이 행동을 해서 인류사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바르게 알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학교가 주도하고 있는 '밝은 사회 운동'의 세부 운동 중 하나가 이 삼정행이기도 하다. 삼정행 외에도 8개 대리석판에 적혀있는 글귀들은 조 학원장 본인이 깊이 고민한 뒤 체화한 이야기들을 학생에게도 들려주고 싶어 여기에 실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8개 메시지 적힌 흰색탑 우리학교 정신담은 상징적 공간

이후 상록원은 작은 변화를 거듭하다 올해 보행로 확장과 구성원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공사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다. 2000년 이전에는 휴식공간이라는 의미가 컸던 상록원은 2000년 이후 8개의 메시지가 적힌 흰색 탑이 들어서면서 우리학교의 정신이 담긴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됐지만 울창한 나무들에 가려져 구성원들과 다소 떨어져있게 되었다.

상록원은 이젠 넓은 잔디마당으로 바뀌어 구성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사는 상록원을 휴식공간과 상징적 공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조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도 상록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인간과 문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언제나 학생 곁에서 푸른 모습으로 남길 기대해 본다.

한 박자 빠른 소식을 원한다면
각종 뉴스의 링크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기자들의 취재단상이 궁금하다면
제보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일의 날씨와 같은 소소한 정보까지 얻어가고 싶다면

주저말고 지금,

대학주보와 친구가 되어 주세요
SNS에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khunews@khu.ac.kr
http://media.khu.ac.kr/khunews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대한민국과 도스토옙스키의 유토피아

전문가 칼럼 - 유토피아

권기배
후마니타스 칼리지

인간이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다시 찾는 길, 특히 지름길은 바로 타인과의 '소통'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에 있다

#. 201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살률 세계 1위, 장기불황, 출구 없는 청년 실업, 이념 갈등, 빈부 격차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860년도에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에서 보고 느꼈던 '절망적 음울함'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잿빛의 현실을 장밋빛 유토피아적 미래로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스토옙스키의 〈우스운 자의 꿈〉은 이 글이 쓰여진 150여년 후를 사는 오늘날을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준다.

삶에 지친 추울한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갈망한다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인간의 갈망은 현실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면 할수록 거대한 담론을 형성해 왔다. 이 담론에서 언급되는 낙원에 대한 상상력 목록의 상단에는 물질적이고 향락적 모습이 강한 '코케인(Cockayne)', 전원적이면서 목가적 이상향인 '아르카디아(Arcadia)' 그리고 인간의 절제와 사회제도의 개선을 통한 '유토피아(Utopia)'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 토마스 모어가 1516년 자신의 저서 〈유토피아〉를 통해서 소개한 '없는(ou-)'과 '장소(toppos)'의 그리스어 합성어인 유토피아에 관한 시공을 초월한 폭발적 관심은, 낙원의 상상력 목록에 이름을 올린 다른 매력적인 용어들을 제압하면서, 단숨에 담론 무대의 원초적인 주인공인 '낙원'을 '유토피아'로 대체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울한 영혼의 소외된 우리 인간들은 현실의 도피처이면서 미래의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제국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살았던 인간심리의 냉철한 분석가, 잔인한 천재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도 1860년대 음울한 러시아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유토피아'를 자신의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찾고 있었다. 정통 슬라브주의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러시아 정교의 공동체 정신은 서구에서 들어온 '초인 사상', '공리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었고, 비잔틴 문화의 정통 러시아의 고대 도시인 모스크바를 대신해서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구식 도시 페테르부르크는 가난, 청년실업, 대기오염, 매춘, 도박, 범죄 등으로 병들고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병폐를 개선하고자 작가의 출세작인 〈죄와 벌〉(1866)의 주인공인 백수 청년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의 〈분신〉으로 오판해, 전당포 노파를 도끼로 살해하면서 사회적 유토피아를 외쳤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러한 슬픈 절규는 동시대인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유토피아'의 희망적 미래에 의지하고자 했던 많은 러시아인에게 현실의 음울함에 대한 혐오감만 배가 시켰을 뿐이었다. 도스토옙스키를 최고의 예술가로 평가받게 만든 작품 〈백치〉(1869)의 주인공, '바보성자'인 '므시킨 공작'도 음습하고 어두운 러시아의 현실 세계로 단 하나의 타오르는 '횃불'을 갖고 나타나서, 인간의 영혼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유토피아에 대한 기억의 복원을 인간에게 설파하지만,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또 다른 '백치'가 되어 소설에서 쓸쓸하게 퇴장한다. 두 소설에서 묘사하고자 했던 도스토옙스키의 이상은 현실에 지친 러시아의 작은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두툼한 책을 통해 설파하고자 했던 작가의 유토피아 건설의 과정과 목적이 너무 난해했기 때문이었다.

유토피아를 다시찾는 길은 '소통'과 '공감'이다

서구의 합리성을 혐오하면서 우연성이 최대한으로 나타나는 '도박'의 매혹에 빠져들어 한때 도박 중독자가 된 도스토옙스키의 모순된 인생처럼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는 유토피아의 이상에 대한 작가적 혜안은 그의 아주 짧은 단편인 〈우스운 자의 꿈〉(1877)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 상연된 영화 〈아저씨〉의 차태식의 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우인'은 세상과 절연된 채 타인과 소통 없이 살아가면서, 항상 '자살'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우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아저씨〉의 '소미'를 연상시키는 '어린 소녀'였다. '자살'을 잠시 멈추게 해 꿈속에서 잃어버렸던 '낙원'의 모습과 그 붕괴 과정을 보면서 인생의 진실을 알게 하게 한 것은 바로 그 어린 소녀가 현실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달리 말하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었다.

그렇다. 도스토옙스키가 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인간이 잃어버린 유토피아를 다시 찾는 길, 특히 지름길은 바로 타인과의 '소통'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에 있다.

참여마당

서예린
프랑스어학 2014

연애시대

새내기 타이틀을 벗은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미팅이다 소개팅이다 연애 한 번 하기 위해 많이도 애썼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과 cc는 피하고', '동아리에서 만나면 좋긴 한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등 연애에 관한 조언이 쏟아진다. 보는 사람마다 서로 인사말처럼 묻기도 한다. '안녕, 그래, 애인은 생겼고?' 너도 나도 연애를 못하고 있는 것이 퍽 슬프다는 듯이 대답한다. '아니 아직…' 버킷리스트에도 어떤 형태로든 가장 쉽게 그리고 자주 쓰여진다. '연애'. 바야흐로 지금은 연애시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애하려고 할까? 왜 대학에 오자마자 필수로 해 볼 것이 연애가 된 것일까? 혹자들은 말한다. 어렸을 때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 어느 정도는 동의한다. 연애도 경험이니 몇 번 겪고 나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쯤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연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더 나은 연애를 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중학교 이후로 솔로 기간이 한 달을 넘어본 적이 없는 자칭 타칭 연애 중독자 A양. 그녀는 나에게 오직 한 사람이 나만 사랑하는 기분을 내가 느껴봤으면 좋겠다며 일단 아무나 만나보라고 조언한다. 나와 같은 솔로들이 주변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1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이 말 아닐까? '일단 아무나 한 번만 만나봐!' 그러나 우리는 안다.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솔로로 지낸다는 것을.

이쯤 와서 솔로를 재정의하고 싶다. 연애를 갈망하고 있으나 하지 '못하는' 미완성의 상태? 연애가 하나의 스펙과도 같은 지금, 솔로들은 마치 어느 곳에도 끼지 못하는 도태된 이들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닝바닝(닝겐 바이 닝겐), 케바케(case by case)라는 유행어처럼 모두들 자기 나름이다. 인생엔 답이 없다고들 하면서 왜 연애를 하는 것이 꼭 정답이 되는 걸까. 열심히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충분히 예뻐 보이고 때론 부럽기도 하다.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다. 여기저기서 보내는 솔로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의 눈길은 이만 거절하고 싶다. 연애 좀 하라며 인생에 대해 크나큰 충고를 하는 듯 다그치는 오지랖은 오히려 거부감만 들 뿐이다. 물론 내게도 솔로인 지금이 무척 서글프다는 듯이 얘기하며 기회만 되면 소개팅을 잡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에 걸쳐 스쳐지나간 그 남자들, 누군가에겐 지금 그들이 연애 상대일 것이다. 당장 카카오톡에 뜨는 프로필만 봐도 이미 수지, 슬기 등 다른 여자들이 그의 프로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모두에게 묻고 싶다. 나는 정말 연애하고 싶은가? 우리는 왜 꼭 연애를 해야만 하는 걸까? 일단 하고 나면 느끼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다들 하니까? 연애 또한 인간관계의 연장선이다. 전학 간 학교에서 빨리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마음에 일단 마음 먹고 아무나 친구가 될지라도 결국에는 마음이 맞는 친구와 어울리게 되어 있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각자에게 맞는 연애 타입과 취향이 있는 법이다. 우리 서로 취향 존중하기로 하자. 솔로는 단지 연애 중이 아닐 뿐, 연애 '못하는' 중이 아니다. 혼자임에 대한 위로는 필요치 않다.

전국에 있는 솔로들, 안녕한가? 오늘도 마감기간이 언제인지도 모른 채로 쫓기는 과제인 '연애'에 치였을 당신에게 싱거운 안부를 묻는다. 우리… 연애, 꼭 해야 할까?

▶1면에서 이어짐

이 인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공자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불과 1만 5천여 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록이지만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08회 나온다. 그런데 공자는 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모두 다르게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인이 무엇이냐고 여쭙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고,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나의 욕심을 이기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인'이라 대답했다. 또 중궁에게는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심지어 늘 말이 많아서 꾸지람을 들었던 사마우가 인에 대해 묻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인'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다.

공자가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야기한 인을 하나로 묶어 핵심을 보여준 사람은 맹자다. 맹자는 어린아이가 막 우물에 빠지는 순간을 가정한 '유자입정(孺子入井)'의 비유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맹자는

이 인을 가장 강조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공자다. 공자의 어록인 《논어》는 불과 1만 5천여 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기록이지만 인이라는 글자가 무려 108회 나온다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목도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일단 불쌍히 여기고 가슴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 때 측은의 '측(惻)'은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은(隱)'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다. 맹자는 이 측은지심이 인의 실마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때로는 측은지심이 바로 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혹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측은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맹자가 인간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를 테면 지하철 구내에서 사람이 철로에 떨어진 순간 어떤 사람이 번개처럼 뛰어들어 구해낸 일이 있었다. 사람을 구하는 짧은 순간, 그에겐 어떤 계산도 있을 수 없다. 맹자가 보기에 이런 행동은 모두 타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인의 발현이다. 설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늘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친구들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하고 싶은 친구들
자신을 좀 더 이해하길 원하는 친구들
진로를 찾고 싶은 친구들

언제든 학생생활연구소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1.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2.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지를 받습니다.

Q2. 비밀 보장이 되나요?
검사해석 및 개인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은 비밀 보장을 가장 우선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Q3. 어떤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1. 진로 및 학습검사
U&I 진로탐색검사
전공 및 흥미분야와 자신의 성격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언제? 진로흥미와 자기성향이 맞지않아 진로선택이 고민될 때
2. 심리 및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자신의 행동 및 성격특성과 적응정도에 대한 이해를 도움
언제? 나의 현재 심리상태가 궁금할 때 (우울, 불안 등)
기질 및 성격검사 (TCI)
자신의 기질과 성격을 평가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도움
언제?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성격유형검사 (MBTI)
자신의 심리적 경향성을 알고 성격의 장/단점을 알아봄
언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싶을때

Q4.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화 / 메일 / 방문

서울캠퍼스
02)961-0207
counsell@khu.ac.kr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zone 5,6번창구

국제캠퍼스
031)201-2806
counsel@khu.ac.kr
학생회관 218호 학생생활상담실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17시
(12시~13시는 점심시간입니다.)

기획

"집은 사람이 사는 곳…사람 냄새 풍기는 집이 좋은 집"

2015 서울시 건축상 대상 '도천 라일락집'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2015 서울시 건축상'에서 우리학교 정재헌(건축학) 교수가 출품한'도천 라일락집'이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상'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삶의 질을 높인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33회째를 맞는다. 우리신문은 정 교수를 만나 '도천 라일락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학교 정재헌 교수가 설계한 '도천 라일락집'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7길 60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도천 라일락집'이 위치해있던 기존 단독주택은 원래 어수선한 다세대 주택 사이에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 있던 곳이다. '도천 라일락집'의 설계를 정 교수에게 의뢰했던 건축주는 정 교수와 고등학교 3학년 친구였던 인연으로 부탁했다고 한다. 이 집의 터는 우리나라 근대 초기 서양화의 개척자 도상봉 선생이 1932년부터 자리 잡고 활동한 공간이다. 더불어 건축주에게는 4대째 생활의 터전이 되어 준 공간이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내림에 따라 집을 옮기는 가정도 많지만 건축주는 정 교수에게 이 장소가 지닌 의미를 살려 도상봉 선생 기념관을 겸한 가정집을 지어주기를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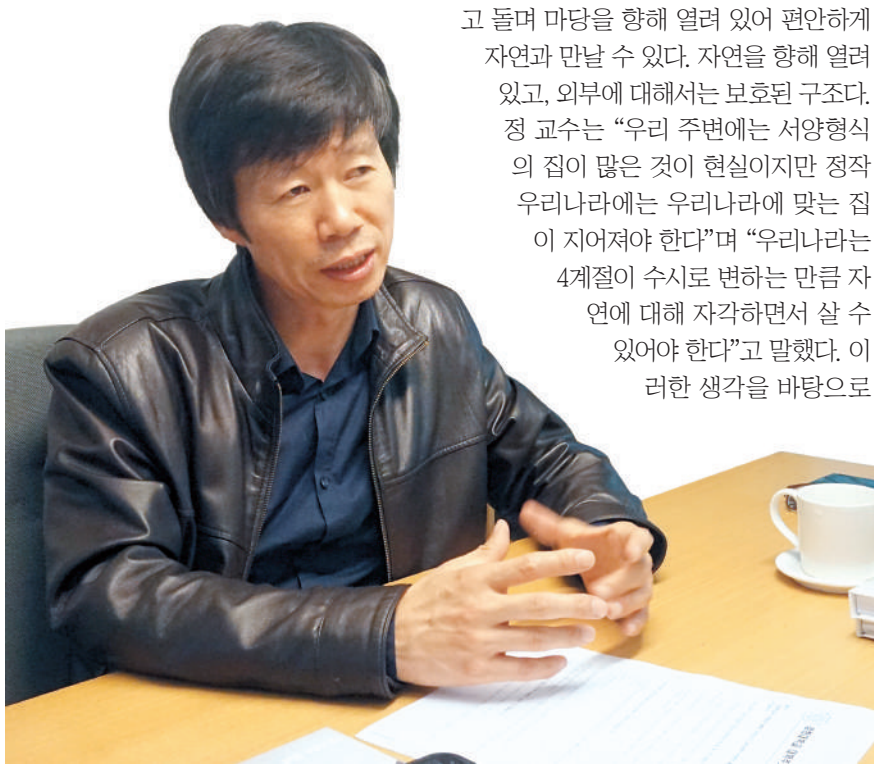
'도천 라일락'이라는 집의 이름 중 '도천'은 도상봉 선생의 호이고 '라일락'은 도상봉 선생이 즐겨 그리던 그림이다. 정 교수는 "도상봉 선생이 이 집에 거주했을 당시 굉장히 큰 라일락 나무가 있었다고 들었다"라며 "도상봉 선생이 라일락을 많이 그렸던 이유는 라일락나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면서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집이 라일락처럼 드러나기 보다는 차분하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풍경의 한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다.

정 교수는 '도천 라일락집'을 'ㄷ'자 구조에 맞추어 마당 쪽으로 난 창을 통해서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집을 만들고, 마주보고 있는 창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한옥을 닮은 '도천 라일락집' 주변과 조화까지 생각하다

그는 '도천 라일락집'이 동네에 오래된 벽돌집 사이에서 이질적이지 않도록 벽돌을 깨서 사용하거나 벽돌 쌓는 방법을 달리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해 군데군데마다 색이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변과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 근교에 있는 성균관 기와 단청에서 붉은 색을 따 벽돌의 색을 정했다. 정 교수는 "개인의 집이어도 건물은 공공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도시에서 같이 사는 사회가 된 만큼 건물 하나하나 보다는 건물과 주변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천 라일락집'은 'ㄷ'자 구조로 마당을 품고 있다. 'ㄷ'자 한옥동선이 안마당을 끼고 돌며 마당을 향해 열려 있어 편안하게 자연과 만날 수 있다. 자연을 향해 열려 있고, 외부에 대해서는 보호된 구조다. 정 교수는 "우리 주변에는 서양형식의 집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정작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집이 지어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4계절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자연에 대해 자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아파트와 같이 차단되어 있는 집과 달리, 생활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집을 설계했다. 'ㄷ'자 구조에 맞추어 마당 쪽으로 난 창을 통해 따사로운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집을 만들고, 마주보고 있는 창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화실 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화에 대해 무지했을 시절 도상봉 선생이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당대 많은 화가들과 함께 우리 문화재의 가치나 서양화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아지트와 같은 장소였다고 한다. 정 교수는 도상봉 선생 화실 터에 작은 기념관을 지으며 행인들이 봤을 때 오브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본관에는 회색 벽돌을 사용하고 기념관은 붉은색 벽돌을 사용해 눈에 띌 수 있는 상징물로 만들었다.

정 교수는 '도천 라일락집'을 지으며 건축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는 "좋은 집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주가 중요하다"며 "건축가는 열정을 먹고 사는 직업인만큼 건축가의 열정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도중 말을 멈추고 갑자기 책상 위로 작은 책자를 기자에게 보여주었다. 그 책자는 다름 아닌 건축주가 시공과정을 사진과 자신의 그림으로 담아낸 책자였다. 책자에는 설계 과정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건축주와 설계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같이 지어나가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례적인 일반주택 건축 대상 건축주와 건축가, 소통이 만든 결과

그는 "건축주가 자신을 믿고 따라 준 덕분에 이렇게 멋진 '도천 라일락집'을 지을 수 있었다"며 건축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정 교수는 '서울시 건축상'에 '도천 라일락집'을 출품하며 "일반적으로 설계자와 건축주는 갑을 관계인 경우가 많지만 설계자와 함께 고민하는 건축주와의 관계를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서울시 건축상'심사에서 일반 주택이 대상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현장점검 심사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좋은 건물'이라는 평을 받았다"며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건축의 목적을 잘 표현했기에 대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라일락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라는 제목의 책자를 넘기며 "'도천 라일락집'은 나에게 너무도 행복한 작업 이었다"고 평했다. 그 책자에는 집이 지어진 후에 건축주의 가족이 생활하는 모습이 사진과 건축주의 그림으로 담겨있었다.

책자 속 한 페이지에는 건축주와 건축주의 아버지가 편안한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와 있는 사진과 함께 '아버님이 '이 집 참 좋다'라고 말하셨다'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라는 유행가의 가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 지금이다. 바쁜 일상에 치여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들에게 '도천 라일락집'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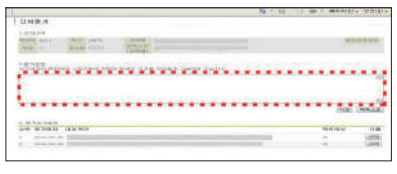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됨.

-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5. 10. 05(월) 10:00 ~ 11. 27(금) 17:00 (8주)
-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강의평가 → 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 입력화면 설명
  가. 1번 '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나. 2번 '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번 '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파악 가능



-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팝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창닫기'를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 참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가는 1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2015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 공고

2015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보충훈련에 대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훈련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훈련대상 :** 2015년 1학기 기본교육 훈련(8시간) 불참자, 2학기 복학생으로 '15년 훈련 불참자 전원
- **훈련일자**

훈련일자	훈련대상	시간
10월 28(수)	● 공과대학 ● 동서의과학과 ● 생명과학대학 ● 외국어대학 ● 응용과학대학	09:00 ~
10월 30(금)	● 국제경영대학 / 국제대학 ● 예술디자인대학 ● 전자정보대학 ● 체육대학 ● 일반 / 전문 / 특수대학원 ● 2시간 대상자 전원(향방작계 6시간 이수자)	

- **훈련장소 :** 용인시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묵동로 87)
-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50분) → 용인시 예비군 훈련장 도착(8:50분)
  ※ 강남역 지역 차량 배차는 없음
- **유의사항**
  가. 휴학 기간 중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1차 보충훈련부터 무단불참한 훈련은 복학 후에도 보충훈련 부과
  ※ 보충훈련시간이 방침보류시간(8시간) 초과시는 보충훈련시간을 적용하고, 미달시는 방침보류시간(8시간)을 적용
  나.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훈련을 신청·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다. 개인 사물보관함에는 분실 우려가 있으니 귀중품(시계, 금전, 반지 등)은 보관하지 말 것(분실시 개인 책임을 명심할 것)
  라.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부속기관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3주전 공지)
  마. 예비군 복장(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착용시 입소 불가)
  바. 훈련 입소 시 음주흔적 발견되면 입소 불가하오니 훈련 전 음주행위 삼갈 것
  사.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아. **'15년 훈련 시 입소통제 지침(09:00~09:30 : 입소불가 / 신고불참 처리, 09:30~입소불가 / 무단불참 처리)**
  자. 무단불참으로 인한 고발 및 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는 개인 책임임에 유념
  ※ **보충훈련 불참자는 추후 훈련 부여시 차량지원 없이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금번 보충훈련시 전원훈련 참석 요망**
- **기타**
  가.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연대본부(학생회관 2층 219호, ☎201-3265~9)로 문의바람
  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화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예비군은 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에서 수정 요망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직장예비군 연대장

2015학년도 천문대 공개 관측회 개최 안내

2015학년도 천문대 공개 관측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구성원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 10. 28(수) 19:00 ~ 22:00
- **장소 :** 국제캠퍼스 천문대
- **대상 :** 경희대학교 전 구성원 및 가족, 일반인
- **주최 :** 천문대
- **주관 :** 천문대 및 우주과학과 학생회
- **행사 내용**

시간	견학		관측	천체투영	영상물	강연
	주망원경 견학	초소형 인공위성 지상국 견학	소형망원경 관측	플라네타리움	천문·우주과학 영상물 상영	천문·우주과학 강연
19:00~22:00	1타임 20분 휴식 10분 총 6회 진행	1타임 20분 휴식 10분 총 6회 진행	자유관측	1타임 20분 휴식 10분 총 6회 진행	4회 상영	퀴즈로 풀어보는 우주이야기 총 3회 진행

※ 문의 : 031-201-2470
※ 협조 사항 : 공개관측회 행사 관계로 천문대 주차장내에 주차는 불가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천문대